

9월 2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2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BUY' 붓물...하루만에 기력 회복	증시가 휴식 하루만에 다시 상승 기력을 회복했음. 1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36.28포인트(0.37%) 오른 9,820.20으로 마감했음. S&P500 지수는 2.81포인트(0.26%) 올라선 1,068.30, 나스닥 지수 역시 6.11포인트(0.29%) 뛴 2,132.86으로 장을 마쳤음. 주요 경제지표나 변수가 뜸한 가운데 전날 조정을 통해 기력을 재충전한 미 증시는 장초반부터 상승세를 유지했음. 지수 선물과 옵션 만기, 개별 종목 선물 옵션 만기가 겹치는 이른바 '퀵트리플 위칭데이'를 맞아 거래량이 급증했으나 우려했던 시장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음.
국제유가 이틀째 하락	달러화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국제유가가 이틀째 하락했음.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43센트(0.6%) 떨어진 72.04달러로 마감했음.
국내주식펀드서 4,000 억 해지..올들어 최대규모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올들어 최대인 규모인 4,000억원이 해지(출금)되면서 닷새째 자금이 빠져나갔음.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3,366억원이 순유출되었음. 이날 해지(출금)된 금액은 4,022억원에 달해 올들어 가장 많은 금액이 출금되었음. 국내 주식펀드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1조 4,000억원 이상 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자금이 빠르게 흘러나가고 있음. 전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3,808억원 감소한 132조 4,377억원을 기록했음. 국내 주식형은 3,725억원 줄어든 78조 1,786억원을, 해외주식형은 83억원 줄어든 54조 2,591억원을 나타냈음.
韓증시, 오늘부터 FTSE선진지수 편입	한국증시가 오늘(21일)부터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선진국지수에 실제 편입돼 거래됨. 대규모 자금 순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대형주들의 주가 재평가가 기대됨. 반면 이머징마켓에서와 달리 지수에서 배제되는 중형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FTSE측은 21일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FTSE 선진국지수를 재산정해 이날부터 거래를 시작한다"며 우리나라의 공식 편입을 밝혔음. 우리 증시가 신흥지수에서 선진지수로 소속을 바꾸면 그동안 신흥지수를 추종했던 투자자금은 이탈하고 선진지수를 따라가는 자금들이 새로 들어오게 됨.
STX팬오션, 6조원대 운송계약..사상최대	STX팬오션이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와 최대 6조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함.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TX팬오션(028670)(11,550원 0.0%)은 발레와 25년간 철광석 운송계약을 맺기 위해 세부 조건을 조율중임. 총 계약금액은 5조~6조원대에 달해 단일 계약 금액으론 거의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	주요 내용
中 인민銀 "부양기조 지속할 것"	중국 인민은행은 19일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효과를 거뒀다"며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는 경제 성장을 확실히 하고 시장 신뢰를 안정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시그널들을 보냈다"며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면서 빠른 성장을 전적으로 부양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추후 어떤 통화 정책들을 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지난 주 나흘간 열렸던 제17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 전회)에서 결정된 원칙을 반복. 19일 폐막한 전회에서 공산당은 경제 회복이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확인.
美·日·유럽, 대형 은행 자산평가 강화	미국과 일본, 유럽 금융감독 당국들이 은행 부실 자산 평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지가이신문이 20일 보도. 고위험 증권화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자본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를 포함한 또 다른 자본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이 확인될 전망이다. 주요국 감독 당국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은행 내 부실 자산의 수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임. 예를들어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하이브리드 상품의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이 비중을 들어 결국 전체 자산 가운데 위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도 검토되고 있음.
8월 부도업체 또 최저 기록 경신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국의 부도율이 석달 연속 낮은 수준을 이어갔음. 특히 지난 8월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90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전국 어음부도율 0.02%로 6~7월과 같은 수준을 이어갔음. 지역별로는 서울이 0.01%로 7월과 같았고 지방은 0.08%로 7월보다 0.01%p 하락했음. 부도업체수는 7월의 129개보다 19개 감소한 110개로 90년 1월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기록을 경신했고, 종전 최저기록은 지난 6월의 125개였음. 한편 지난 8월 신설법인수는 4,567개로 한달 전보다 934개가 감소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